상시 생태관광 프로그램_봄(4월~6월)

유형 | 오후형

☐ 프로그램명: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 프로그램 내용

○ 활동장소: 지리산생태탐방원

○ 운영기간: 봄(4월~6월)

○ 소요시간: 3시간

○ 참가대상: 성인

○ 참가인원: 제한 없음

☐ 프로그램 소개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역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운영일정

오리엔테이션(지리산생태탐방원) →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둘레길) → 해산

☐ 세부일정표

	시 간	대 상	주요일정	대체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14:00~14:30	성인	○ 오리엔테이션	해당 없음
	14:30~17:00		○ 둘레길 트레킹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활동장소	지리산탐방원
운영기간	4월~6월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제한 없음
참가인원	제한 없음

활동목표	• 자연을 살리는 착한 여행 '생태관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생태관광의 실천 계기를 마련한다. •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역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준비물	• 영상자료, 해설자료, 체험재료 등
유의사항	• 야외 활동 시 참여자들이 해설사가 안내하는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인솔 • 야외 활동시 구급낭을 휴대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해충 기피제 도포

단계	내용	시간
도입 (마음 열기)	• 오리엔테이션 – 국립공원 및 지리산생태탐방원 소개, 운영진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20분
전개 (탐방 및 힐링)	•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 지리산 둘레길에대해 알아보기 – 섬진강을 따라 걸으며 생태에 대해 알아보기	1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참가자간 소감 나누기 • 해설사 결론 정리	1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의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리산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중략) 저희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를 탐방객들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머무르면서 보고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어진 체류형 생태관광 시설입니다. 저희 지리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탐방원 중에서 제 1호 북한산생태탐방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탐방원으로써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탐방원 이외에도 소백산, 설악산, 가야샨, 한려해상 등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 총 8개의 생태탐방원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탐방 중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탐방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날씨가 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구간 중 오미~방광 구간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과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방광마을을 잇는 12.2km의 지리산둘레길로 전통마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구간 중 하나이다. 오미, 상사, 하사마을에서는 운조루, 쌍산재, 곡전재 등 고택의 정취와 효와 장수의 고장다운 인정을 느낄 수 있다. 화엄사 아래 지리산탐방안내소에서는 지리산의 자원과 역사를 살피고, 생물종보전원에 들러 반달곰도 만날 수 있습니다.(중략) ▸오미마을(운조루)–용두갈림길(1.0km)–하사마을–상사마을(1.7km)–지리산탐방안내소(4.9km)–당촌마을–수한마을(3.2km)–방광마을(1.2km) 지리산 둘레길 오미~난동 구간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과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난동마을을 잇는 18.6km의 지리산둘레길로 오미–난동구간은 서시천과 섬진강을 따라 걷는 길로 여름이면 원추리꽃이 장관을 이룬다.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곳 중 하나인 용두마을에는 일제시대 울분과 저항의 흔적인 용호정이 있고, 섬징강 일대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강바람 따라 제방길을 걷다 보면 지리산과 인근 들녘이 어우러지는 조망 속에 구례 5일장(3일, 8일)과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를 만날 수 있다. ▸오미마을(운조루)–용두갈림길(1.0km)–서시교–구례센터(5.6km)– 연파마을(광의면소재지)(6.0km)–구만마을(우리밀체험장)(3.2km)– 온동마을–난동갈림길(2.8km)

마무리(참가자 간 소감 나누기)

아쉽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즐겁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해볼까요?

네~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소감을 잘 표현하신 거 같은데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자연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연 보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에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는 그 효과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